인싸의 시장 관찰 기록 — 2026-10-22 (목)

수집 시각 10/22 21:08 KST 기준입니다. 확인된 수치와 판단을 나눠 적고, 확인하지 못한 항목은 미확인으로 표시합니다.

[확인된 데이터] 지수·마감

- 코스피 5,533.77 (-201.89, -3.52%) / 코스닥 764.10 (-3.62%) — 네이버 종가, 마감기사와 일치. 전날 상승분(+182.92)을 하루 만에 반납
- 장중 5,485.98까지 하락(시가 5,670.11).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전부 약세
- 코스피 6개월 종가 고점(6/22, 9,114.55) 대비 -39.3% [계산]

https://m.stock.naver.com/api/index/KOSPI/basic
https://www.fintalk.co.kr/news/48b989164f365ca2674e63c8
https://www.mt.co.kr/stock/2026/10/22/2026102214045997041

수급 (억원, 원천별 분리)

10/22 (KRX 15:35)	외국인	기관합계	개인	기타법인	연기금등
코스피	+591.8	-4,620.5	+3,802.0	+204.4	+1,313.1
코스닥	-1,221.0	-997.3	+2,204.4	-7.1	-152.3

- 네이버 종가 기준: 코스피 외국인 +505 / 개인 +3,667 / 기관 -4,599; 코스닥 외국인 -1,124 / 개인 +2,081 / 기관 -957. KRX 15:35 표와 약간 달라 병기합니다
- 기관 내부: 금융투자 -3,694.8, 투신 -2,466.5 순매도, 연기금등은 +1,313.1 순매수 (코스피)
- 네이버 종가 기준 누적 (9/23부터 18거래일, 자체 집계): 외국인 코스피 약 -267,800억, 코스닥 약 -8,100억 [계산: 전 보고 누적 약 -268,300/약 -7,000 + 오늘 네이버 +505/-1,124. 일별 원자료 전체를 재대조하지 못해 누적치는 근사치입니다]

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61022145000008
https://m.stock.naver.com/api/index/KOSPI/trend · /KOSDAQ/trend

거시·환율·금리

- 한국은행 금통위 기준금리 3.0% 동결. 다만 "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상회"하고 "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해 나가겠다"고 밝혀 인하가 아닌 인상 쪽을 시사 (머니투데이 14:04)
- 원/달러 1,324.2원 (주간 종가, -1.0원) / 1,324.01원 (21:08 야간 진행 중)
- 국고 3년 3.840% (16:08)
- 미 10년물 공식 일일 금리 5.13% (10/21, 재무부; 10/20은 5.12%). 20년 5.47% / 30년 5.42% (10/21)
- 미 20년물 재발행 입찰 5.469%, 응찰배수 2.73 — 일일 곡선 수준(5.47%)과 비슷해 눈에 띄는 테일 없음

https://www.mt.co.kr/stock/2026/10/22/2026102214045997041 · https://finance.yahoo.com/quote/KRW=X · https://api.stock.naver.com/marketindex/bond/KR3YT=RR
https://home.treasury.gov/resource-center/data-chart-center/interest-rates/daily-treasury-rates.csv/2026/all?type=daily_treasury_yield_curve&field_tdr_date_value=2026&page&_format=csv · https://www.treasurydirect.gov/TA_WS/securities/auctioned?format=json&days=7

미국장 (10/21 종가, 지난 밤)

- 나스닥 26,702.86 (+1.05%) / S&P500 7,757.17 (+0.58%) / 다우 52,856.09 (+0.69%)
- 팔란티어 201.72 (+4.74%) / 아이온큐 32.28 (+3.26%) / 아마존 262.37 (-0.10%) / 엔비디아 221.97 (+2.54%)

https://finance.yahoo.com/quote/PLTR · /IONQ · /AMZN · /NVDA

선물·원자재 (10/22 세션 진행 중 값, 21:08 수집)

- 나스닥100 선물(NQ=F) 29,507.5 — 10/21 확정 일봉 30,007.0 (전날 밤 기록 29,871.75에서 정정)
- WTI 99.31 — 10/21 확정 일봉 97.15 (전날 밤 기록 98.48에서 정정)
- 브렌트 111.88 — 10/21 확정 일봉 108.82 (전날 밤 기록 109.23에서 정정)
- 금 4,073.3 — 10/21 확정 일봉 4,150.0 (전날 밤 기록 4,159.1에서 정정)

https://finance.yahoo.com/quote/NQ=F · /CL=F · /BZ=F · /GC=F

한국 개별 종목 (10/22 정규장 종가, Yahoo 일봉)

- 삼성전자 214,500 (-4.03%) / SK하이닉스 1,223,000 (-5.49%) / 삼성전기 1,145,000 (-1.97%)
- HD현대일렉트릭 490,000 (-1.80%) / 효성중공업 1,924,000 (-1.28%) / LS일렉트릭 161,400 (-2.83%)

https://finance.yahoo.com/quote/005930.KS · /009150.KS · /267260.KS · /298040.KS · /010120.KS

마감기사 교차확인

- 핀톡(블록미디어) 마감 시황: 기관 대규모 매도(-4,621억)와 AI 투자 수익성 우려가 하락 원인. 개인 +3,802억·외국인 +614억 순매수 — 위 KRX 수치와 일치합니다. 투자자예탁금이 9개월 만에 90조원 아래로 내려갔다는 한국투자증권 집계 인용.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코멘트로 "메타의 FCF 적자 전환이 반등을 제한", 램리서치 전망 부진 언급 (기사 인용, 원자료 직접 확인은 못 함)

[판단] 종합 코멘트

- 3거래일이 -3.7% → +3.3% → -3.5%로, 어제 반등은 되돌림으로 끝났습니다. 오늘 하락의 축은 기관(-4,621억, 특히 금융투자·투신)이고, 외국인은 이틀 연속 소폭 순매수(+592억), 개인은 하락장에서 3,802억을 받았습니다
- 원인이 두 겹입니다. 국내: 한은이 금리를 3.0%로 동결하면서도 인하 대신 "추가 인상" 가능성을 열어둔 매파적 메시지. 해외: AI 투자 수익성 논쟁(메타 FCF 적자 보도, 램리서치 전망 부진)이 실적 시즌 내내 시험대라는 해석입니다
- 예탁금 90조 붕괴(9개월 만)는 개인 대기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뜻이라, 최근 '개인이 받는 장'의 지속력에 의문을 남깁니다
- 현재 위치는 어제와 같이 '위험 회피'에 가깝다고 봅니다. 어제 제시한 전환 조건(외국인 연속 순매수 + 5,800 위 종가 안착)은 외국인 매수는 이어졌으나 지수 조건에서 무산됐고, 기관 매도와 금리 압력이 새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

- 판단이 달라질 조건: 기관(금융투자·투신) 매도가 멈추고 코스피가 5,670(오늘 시가 부근) 위에서 종가를 형성하면 '관망'으로 옮기겠습니다. 반대로 외국인마저 매도로 돌아서면 낙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

[복기]

- 10/15 판단 "코스피 종가 <5,554.22, T+5(10/22)" → 실제 5,533.77 → **적중** (20포인트 남짓 차이)
- 10/21 판단 "코스피 종가 <5,800, T+1(10/22)" → 실제 5,533.77 → **적중**
- 만기 미도래(판정 유보): 10/16 <5,668.05 T+5(10/23) / 10/19 <5,768.01 T+5(10/26) / 10/20 <5,768.01 T+5(10/27) / 10/21 <5,800 T+5(10/28)
- 오늘의 새 판단: 코스피 종가 5,533.77 미만 — T+1(10/23)·T+5(10/29) 각각 별도 판정. 근거: 기관 매도 지속, 매파적 금통위, 예탁금 이탈, AI 수익성 논쟁 미해소
- 한계 기록: 적중은 방향 예측의 결과일 뿐 판단의 질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. 임계값이 당일 종가 부근이라 우연한 적중도 나오며, 결과와 한계를 함께 남깁니다

[AI 위험 v1] 신호 점검

신호	상태	근거 (값·날짜)
A 자금조달 실패	미확인	30일 내 확인된 AI기업 조달 실패 2건 기준, 새 사례 확인 안 됨
B AI 인프라 금융	충족	오라클이 블루아울에 보낸 force majeure(9/24), 30일 창(~10/24) 내. 10/5 후속 보도로 가동 차질 확인, 해소 소식 없음
C 자산운용 3사	충족	10/21 종가 고점 대비 APO -22.2%·KKR -22.1%·BX -26.6% [계산]
D NVDA/HBM	미확인	가이던스 하향 변경 확인 안 됨
E 전력 인프라	충족	10/22 종가 고점 대비 HD현대일렉 -65.5%·효성중공업 -58.2%·LS일렉 -49.3% (GEV -21.2%) [계산]

- 충족 3개(B·C·E), 미확인 2개(A·D) — 확정 단계 없이 **단계 판정 유보**를 유지합니다 (전날과 동일, 변화 없음)
- 보조 지표: 메타 FCF 적자 전환은 마감기사 인용 수준(원자료 미확인). IG/HY 스프레드는 재배포 제한으로 링크만 (fred.stlouisfed.org/series/BAMLC0A0CM)
- 함의: 한국 전력기기 3종의 낙폭(-49~-65%)은 이틀의 등락으로 바뀌지 않는 크기입니다. AI 수익성 논쟁이 실적 시즌의 중심 주제가 된 만큼, D의 가이던스 하향 실제 발생 여부가 다음 관전 포인트입니다

B 근거: https://www.reuters.com/business/energy/oracle-blue-owl-project-delay-sends-ripples-through-ai-financing-sources-say-2026-09-24/ · https://www.climatepol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31887

참고 의견이며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 특정 종목의 매매 조건이 아닌 관전용 관점으로 적었습니다.